

지역중소 부채 ‘눈덩이’... 취약·한계기업 급증

한은, 광주·전남 기업부채 현황

연증가율 광주 25.5%·전남 18.5%
광주 코로나 이후 광역시 중 최고
대기업보다 높아... 대출연체도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부채 규모가 대기업을 넘어섰고, 취약기업과 한계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재훈 조사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광주·전남 기업부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율로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5.6%보다 빠르게 늘었다.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광주의 경우 2018년말 43.9%에서 2021년말 68.8%로, 전남 역시 같은 기간 20.0%에서 26.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비금융업

을 영위하는 총 1553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개별 재무제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단 개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지역 내 기업부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한전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기업대출 규모는 각각 37억5000억원, 31조5000억원으로, 가계대출 규모(광주 30조3000억원, 전남 27조5000억원)를 초과했다.

광주지역 기업부채 증가율은 2019년 10%대로 낮아졌다가 2021년 25.6%까지 높아진 후 최근까지 2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2019년말 대비 2022년 기준)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8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역시 코로나 이후 증가율(44.5%)이 강원, 전북에 이어 도지역 중 세 번째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기업부채는 대기업보다 중소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규모도 대기업을 넘어섰다.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중소기업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5.5%로 대기업 13.4%를 크게 웃돌았다. 중소기업 부채 역시 지난해말 기준 16조2000억원으로, 대기업 14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남지역 중소기업 역시 같은 기간 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18.5%로 대기업 7.2%를 크게 상회했다. 부채규모도 지난해말 기준 11조7000억원으로, 대기업 9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광주와 전남 각각 51.9%, 47.7%로 모두 대기업(광주 32.9%, 전남 23.5%)보다 크게 높았다.

기업부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도 가중되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예금은행 기준)은 광주

와 전남이 각각 0.35%, 0.30%로 2021년말(광주 0.34%, 전남 0.23%)보다 상승했다.

광주·전남 기업부채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말 기준 광주 기업부채 비중은 부동산업(46.0%), 제조업(22.7%), 건설업(20.2%) 등의 순이었으며, 이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비중은 광역시 평균(부동산업 30.3%, 건설업 8.8%)을 크게 상회했다.

전남은 제조업(31.9%), 에너지 관련업(19.8%), 부동산업(15.9%), 건설업(14.1%) 순이며, 이중 건설업과 에너지 관련업 비중이 도지역 평균(건설업 5.3%, 에너지 관련업 5.9%)보다 높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광주와 전남 각각 43.2%, 33.4%로 2019년

말(광주 38.6%, 전남 31.4%)에 비해 증가했다.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져 부실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기업 역시 광주와 전남 각각 19.4%, 15.1%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말 기준 광주 11.9%, 전남 11.3%)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부동산업 및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취약기업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기업 및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부실 관리 등을 위해 개별기업,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 출시

실외기 1대로 최대 3대 간편 설치

삼성전자는 실외기 1대로 에어컨을 3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홈멀티 에어컨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Fit Home)’을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은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으로 구성된 기존의 홈멀티 에어컨에 천장형 에어컨까지 추가한 신개념 홈멀티 제품이다.

2대 패키지는 스탠드형 1대, 천장형 1대, 실외기 1대로 구성되며 3대 패키지는 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1대, 천장형 1대, 실외기 1대 또는 스탠드형 1대, 천장형 2대, 실외기 1대로 구성된다.

천장 안쪽 공간이 부족해 기존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어려웠던 곳에도 단내림 키트를 통해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은 거실과 안방 등에 매립배관이 있으면 시공 범위를 줄일 수 있어 에어컨을 보다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은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에어컨 3대를 모두 ‘무풍모드’로 운전하면 ‘강력냉방’ 대비 소비전력을 최대 72%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싱스(SmartThings)’



에서 제공하는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과냉방이 감지될 때 억제 알고리즘이 적용돼 소비전력을 자동으로 최대 20%까지 아껴준다.

이밖에 내부 청소가 어려운 에어컨을 기기가 스스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셀프 세척이 가능한 ‘이지케어’ 기능, 초미세먼지는 물론 공기 중 유해세균을 제거해주는 ‘안심정정’ 기능 등 무풍에어컨의 장점은 모두 갖췄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은 내추럴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되며, 냉방 면적은 각각 스탠드형 에어컨 62.6㎡, 벽걸이 에어컨 18.7㎡, 천장형 에어컨 18.7㎡이다.

출고가는 타입과 조합에 따라 630~754만원이며,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현판 수여식

국산 농산물 수출기업 현농프레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현농프레쉬를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농프레쉬는 장성 나노산단에 위치한 농산물 수출 전문기업으로, 8개국에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한국산 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에 기여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조종래 청장은 수여식에서 “올해 광주·전남지역은 10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

업 1000+에 선정됐으며, 10개 기업 모두 지방청장이 현장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 ‘또만나요!’ 이벤트

연말까지 상품 가입·응모시 경품

광주은행은 오는 12월31일까지 ‘또만나요!(CU Again~)’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2000조에 CU편의점 쿠폰 5000원권을 지급한다. 쿠폰은 대상 상

품별 1매, 개인당 최대 총 6매까지이며, 응모는 필수사항이다.

먼저,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이벤트 상품 미보유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상품을 신규 가입 시 쿠폰을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펀드(가입금액 10만원 이상)·개인IRP(가입금액 10만원 이상)·외화적금(정액식,

6개월 이상, 미화 100불 이상)·외화예금(6개월 이상, 미화 1000불 이상)·일일형 ISA(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이 있다.

다음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된 신용카드 보유 고객 중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없고, 이벤트 기간 내 1만원 이상 사용하면 쿠폰을 지급한다.

경품은 이벤트 기간 내 해당 이벤트에 응모하고 전월(1일~말일)동안 이벤트 조건을 충족 시, 익월 10일에 휴대폰번호로 발송한다.



노동 칼럼

노동자의 사직 의사 표시

A씨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2023년 1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최근 이직을 결심하고 사업주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업주는 후임자를 구해보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속 일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주는 일주일 정도 구인 공고를 올렸으나 적당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후임자를 구하기 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그 전에 그만두려면 그에 따라 돈을 내놓고 가라고 했다.

개별근로 관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일반법인 민법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살펴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승낙하면 합의 퇴직이 되고, 그때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업주는 사직 의사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3항에서는 임금을 지급,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보받은 당기 후의 일기(1기)를 지남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6월 임금을 6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 7월10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6월5일에 그만둔다고 말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6월5일이 속한 임금 산정 기간(당기, 6월 초~말일) 후의 일기(1임금지급기, 7월 초~말일)가 지난 8월1일이 돼야 계약이 해지된



이연주
공인노무사

다.

따라서 A씨처럼 사업주가 사직 의사 표시를 계속해 승낙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니라 정식으로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업장 임금 지급방식에 따라 민법 660조 제3항을 따를 수도 있음)

또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

도록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이번에는 서류로 정확하게 사직서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8월 말까지만 일하기로 했다. 그전까지 인수인계 등 본인의 임무를 다할 테니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사업주가 그 이후에도 후임자를 이유로 계속 출근을 강요한다면, 위약금을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이외에도 사직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